

## 동아시아 사회혁신, 집중 탐구의 장

: EASII 2015~2016 워크숍 활동 보고

이은경 | 사회의제팀 연구위원 (eklee@makehope.org)

### I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5년 아시아 사회혁신의 선도적인 네트워크인 ANIS의 느슨하고 포괄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를 구성했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시적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생각과 가치, 임팩트에 대한 통합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EASII는 개인, 시민단체 중심의 의제영역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사회혁신 의제를 도출해내고, 각국의 사회혁신 토대와 환경을 튼튼히 해줄 정책실행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혁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5~2016년에 걸쳐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 EASII 첫 워크숍은 '동아시아 사회혁신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2015년 7월 5~6일 도쿄에서 열렸다. 두 번째 워크숍은 2015년 11월 4~5일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 번째 워크숍은 2016년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은 각 나라의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3국이 현재 사회혁신 초기단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효과적인 섹터 간 거버넌스를 위한 이슈.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I 키워드 동아시아, 사회혁신, 네트워크, EASII, 국제교류, 협업, 워크숍

## I. 아시아 사회혁신 국제교류의 토대

‘혁신’의 전통이 산업과 기술, 경영의 진보를 이뤄왔다고 믿는 유럽과 북미에서는 ‘사회혁신’이 20세기 말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 문제들을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했다. 때로는 대안교육운동이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활동으로, 때로는 사회적 기업이나 획기적인 복지서비스, 또는 소비자운동이나 공유경제모델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국가의 중앙과 지방 정부들은 사회혁신을 공공정책의 기조로 삼기도 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는 어떨까. 아시아에서도 사회혁신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인도의 허니비네트워크(Honey Bee Network), 태국의 도시공동체 프로젝트(The Bann Mankong Community Upgrade Program),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Grameen Bank)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대표 사례들이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 등의 사회혁신 열기 또한 뜨겁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의 고질적 문제들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은 사회혁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집중하는 문제들과 각기 처한 사회적 조건은 다르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 해결의 주체, 협력의 지점들은 많은 부분 겹쳐진다. 저성장시대 진입과 고령화 회, 농촌의 급속한 공동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문제 등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가들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제행사인 아니스(ANIS: Asia NGO Innovation Summit, 이하 ANIS)를 개최했다. ANIS는 ‘아시아 시민사회에 사회혁신을 뿌리내린다’는 목표 아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연례 컨퍼런스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아시아 사회혁신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의 사회혁신가, 혁신적 NGO와 지방정부, 연구자와 비영리 활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사례를 나누고 생생한 사회혁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ANIS는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

5년여의 시간을 거쳐 ANIS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지역과 나라에서 사회혁신의 열정을 전파하고 치열한 실행과 진통을 거치며 성장하였다. 인접 지역 ·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통의 이슈와 문화적 인접성을 매개로 하는 중규모 단위의 국제포럼을 만들고, 유럽 등 서구 사회혁신 지원단체의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시도하는 등<sup>1)</sup> 적극적으로 사회혁신 역량을 키워갔다. 점차 확장되는 사회혁신의 토대위에서 각국의 현장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집중적인 교류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1)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는 서남아시아권 사회혁신 네트워크라든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의 남부 아시아권 국가들의 활발한 교류활동, 그리고 홍콩, 태국 등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식스(SIX Asia: Social Innovation Exchange), 아쇼카 등이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 II. EASII 시작

희망제작소는 2015년 아시아 사회혁신의 커다란 울타리인 ANIS의 느슨하고 포괄적인 네트워크 성격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국제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이 있으며, 여타의 사회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하여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간 집중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사회혁신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를 펼치고자 했다. EASII의 핵심목표는 동아시아를 무대로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AVPN: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일본 사회투자수익률 네트워크(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Network), 니폰재단(Nippon Foundation), 중국의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LePing Foundation),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Global Links Initiative) 등은 2015년 3월 희망제작소에서 공식 제안모임<sup>2)</sup>을 갖고 EASII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 III. EASII 경과

### 1차 워크숍 : 2015.07.05~06 일본 도쿄

EASII 첫 워크숍은 '동아시아 사회혁신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2015년 7월 5~6일 도쿄에서 열렸다. 한중일 대표들은 향후 3년 동안 각국에서 워크숍을 열어 사회혁신 공동프로젝트와 방법론 개발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프닝세션과 총 3개의 주제세션으로 구성된 1차 워크숍에는 3국의 사회투자조직,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 비영리재단, 연구기관과 정부기관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다.

오프닝세션은 각국의 사회혁신이 어떤 조건과 역사,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기초발제<sup>3)</sup>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일본, 한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сек터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 그리고 사회적기업 활동과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이 활발히 증가하는 데 비해 중국은 초기 확산단계로서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최근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혁신에 관심을 갖는 재단과 개인기부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면서 60만개가 넘는 비영리조직이 활동하는 등 사회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제안모임은 2015년 3월 16일 르핑재단, AVPN 동아시아지부, 니폰재단, 인텔치이나&아시아, 희망제작소 등에서 대표 및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오프닝세션의 기초발제자는 Tatsuaki Kobayashi 일본NPO센터 수석연구원, 이원재 당시 희망제작소 소장, Fan Li 중국 르핑 사회적기업가재단 수석자문이었다.

이어진 3개 세션은 각각 사회적 임팩트 투자와 평가, 사회혁신 정책과 지역적 협력, 기술과 사회혁신에 관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일본의 사회투자평가 지표연구 사례(Shigeru Fujita), 한국의 소셜파이낸스(김양우 교수), 임팩트투자자와 소셜벤처(김재현 크레비스 대표) 현황의 공유는 한일 간 사회투자평가 비교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G8사회성과투자의 일본자문단 활동에 대한 공유는 중국 G8사회투자성과포럼과 연결하여 사회투자성과 연구의 중요성과 실효성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했다. 또한 일본 휴먼계좌의 혁신적 활용방안, 중국 우버택시의 혁신기술 활용과 합법화 논란 사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노력, 중국의 비영리와 시민주도 기술(Civic Tech)에 대한 발표는 디지털기술과 사회혁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표 1] EASII 1차 워크숍 참가기관

국가	기관
중국	르핑 사회적기업가재단
	Stanford PACS
	중국 비교정치경제연구소
	홍콩대학교
일본	New Teacher Center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
	일본모금연합회
	닛폰재단
	일본 NPO센터
	re:terra
	일본 국제발전연구센터
	사회투자파트너
	도요타재단
	브릿지 포 후쿠시마
	일본모금연합회
	사회투자파트너
	Teach for Japan
한국	(재)희망제작소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
	크레비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기술혁신연구단

## 2차 워크숍 : 2015.11.04~05 한국 서울

두 번째 워크숍은 2015년 11월 4~5일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sup>4)</su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최하였다. 2015 GSEF운영위원회 5개 부대행사의 하나로 열린 EASII 워크숍은 '아시아, 사회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동아시아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동아시아 사회혁신과 기술'에 관

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교류와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각국의 도시정부와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2013년 11월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창립을 결의하고, 2014년 창립총회와 함께 발족했다. 서울시가 2016년까지 초대 의장도시를 맡아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한 두 개의 집중세션을 진행했다.

Ken Ito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AVPN) 동아시아지부 국장이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민간기업의 사회혁신 촉진 사례(Fumi Gugeno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의 여성사회적기업가 지원방안(Sayaka Watanabe Re:terra 대표), 중국의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Shangshang Chen 르핑재단 수석연구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투자(임창규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 수익창출을 통해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사례(황진솔 브릿지인터내셔널 대표)를 공유했다.

이 세션은 사회적경제가 동아시아 사회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2013년 G8사회성과투자포럼 개최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기금 조성 및 정책제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민간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삼국의 거시적인 사회혁신 패러다임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시민주도 기술(Civic Tech)에 관한 한중일 삼국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재생이 사회혁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삼국의 협업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서울이 디지털 스마트 도시 구축과정에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집단지성, 리빙 랩, 코드포서울과 같은 시민협업과 창안을 통해 오픈 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구축한 사례에 주목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민주도 기술의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표 2] EASII 2차 워크숍 참가기관

국가	기관
중국	르핑 사회적기업가재단
	베이징구어쿠르인터렉티브IT
일본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
	re:terra
	일본종합연구소
	코드 포 재팬
	닛폰재단
	게이오대학 SFC연구소
한국	(재)희망제작소
	한국사회투자
	브릿지인터내셔널
	코드 포 코리아
	서울시 정보기획단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루트임팩트

2차 워크숍에서는 서울의 사회혁신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 사회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정부인 서울시가 만든 사회혁신의 주요한 환경을 이해하고 일본과 중국의 도시혁신의 현상과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GSEF사무국, 청년허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조직들이 입주해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했다. 한중일 참가자들은 특히 청년사회적기업들의 활약을 눈여겨보았다. 이어 사회혁신가 커뮤니티 공간 D-well,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코워킹스페이스 Cow&Dog, 공유서재 Innovators' Library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위치한 성수동 소셜벤처 골목을 방문했다<sup>5)</sup>.

### 3차 워크숍 : 2016.06.25~27 중국 베이징

EASII 세 번째 워크숍은 2016년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오프닝세션은 중국 사회적기업과 투자포럼(CSEIF)에 패널로 참여해 더 많은 청중들과 함께 했다. 한중일 각국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통해 사회혁신이 촉진되는지에 관한 기초발제 이후 서울시의 사회혁신과 예산확보현황, 일본 사회적경제 정책의 최근 경향, 중국의 새로운 기부법의 영향에 관한 질문들과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26일 북경대학교 스탠포드센터에서 열린 EASII 단독 워크숍은 한중일 소셜벤처파트너스(SVP)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자선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는 세션 1, 사회혁신에서 문화예술디자인의 역할에 관한 세션 2, 그리고 네트워킹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비즈니스, 사회분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출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투자에 연결해주는 SVP는 현재 서울, 도쿄, 중국에서 국내파트너들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중일 대표들은 각 기관의 현황과 문제들을 공유하고 협업지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세션 2에서는 문화예술과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가 어떻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사회혁신 영역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에 관한 3국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한국의 에코디자인 사회적기업, 일본 카미야마(Kamiyama) 마을, 중국의 어린이병동 디자인, 베이징 구시가지의 오래된 가옥마당의 개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창의적 접근의 필요성과 디자인사고의 중요성,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창출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중국의 경우 최근 사회혁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혁신디자인 연구네트워크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사회혁신의 관점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3차 워크숍의 참가자들 역시 현장탐방의 기회를 가졌다. 방문지는 베이징 인근 통저우(Tongzhou) 지역에 있는 천그루나무 어린이집(Thousand Trees Children's House)이다. 이 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지역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2011년 르핑사회적기업가 재단과 리틀오크(Little Oak) 어린이집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된 곳이다. 중

5)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는 2015년 8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은 최근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유아교육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치된 채로 남겨진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사교육을 결합하여 유치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문제의 사회혁신적 접근을 실험하고 있다.

[표 3] EASII 3차 워크숍 참가기관

국가	기관
중국	르핑 사회적기업가재단
	국민건축연구소
	장난대학교 디자인스쿨
	소셜벤처파트너스 베이징
	베이징현대미술재단
일본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
	아사히신문
	일본종합연구소
	H.I.S. Co.,Ltd (투어리즘컴퍼니)
	소셜벤처파트너스 도쿄
	오사카대학 글로벌이니셔티브센터
	카미야마 코퍼레이션
	사사카와평화재단
한국	(재)희망제작소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에코준컴퍼니
미국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

#### IV. EASII 성과와 전망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의적인 기술적 실험,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 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의 정책적 지원과 협업, 코디네이팅 활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회혁신은 일률적인 규칙이나 원리의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의 만남과 사례를 통해 영감을 얻고, 실마리를 찾고, 대담하게 실험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시적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생각과 가치, 임팩트에 대한 통합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EASII는 출발했다. 개인, 시민단체 중심의 의제영역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사회혁신 의제를 도출해내고, 각국의 사회혁신 토대와 환경을 튼튼히 해줄 정책실행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혁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5~2016년에 걸쳐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중일 사회혁신 사례들을 집중 탐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EASII는 무엇보다 각국의 뚜렷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사회투자평가 지표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과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상당한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민관 협치를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책지원에 관심이 많았다.

주제 면에서도 관심분야가 드러났다. 삼국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술과 사회혁신의 결합,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의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기여 등의 주제에 관심이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한중일 삼국의 스타일, 혹은 지향성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소셜벤처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하거나 국제교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일본은 청년실업, 노숙자문제, 고령화 일자리 등의 국내의 고질적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은 사회혁신의 비전과 미션을 가진 인재들의 발굴과 네트워킹에 집중하였고, 그러한 미션을 실제 프로젝트에 구현할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에 대한 갈증도 높았다.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은 각 나라의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3국이 현재 사회혁신 초기단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효과적인 섹터 간 거버넌스를 위한 이슈.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EASII는 이같은 한중일 사회혁신의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도 기획했다. 그 기획의 일환으로 EASII 한중일 주취기관은 스탠포드 기부 및 시민사회센터(Stanford PACS: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스탠포드 사회혁신리뷰>에 동아시아 특별판 발행을 추진하여 2017년 발간을 위해 준비 중이다.

## V. 앞으로의 과제

EASII는 사회혁신 국제교류가 단순한 사례들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과 연구 활동을 더해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기에 많은 활동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동아시아 3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혁신 모델을 찾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3국의 실질적인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논의를 위한 워크숍과 누구나 참여가능한 사회혁신가들의 오픈네트워크를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2년 동안 함께 워크숍을 조직하고 주관했던 한중일 대표들의 바람은 신생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인 EASII에 현재 남겨진 과제들-서로 비슷하지만 또 미세한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3국의 사회혁신을 향한 열망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EASII 한중일 대표들의 제안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혁신의 논의를 갈음해본다.



“우리는 사회혁신의 핵심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중국의 지방정부 관료와 입법자들이 사회혁신에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EASII가 그런 아이디어의 축제, 지식 공유의 장이 되어서 실제적인 중국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Jaff Shen, 중국 르핑사회적 기업가재단 대표

“사회혁신은 이념적 틀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 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에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쳤으면 한다. 사회투자성과지표, 시민주도기술, 문화예술과 지역재생, 정책개발 등의 주제로 나누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Fan Li, 중국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수석자문

“일본의 경우는 한중일 3국의 대화가 새로운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발판이라기보다는 일본 사회문제 해결에 충실한 사례를 전파하는 계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정부 담당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협업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본 내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문제여서 EASII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to Ken, AVPN 동아시아지부 국장

“EASII가 한중일 3국의 정책 벤치마킹을 연구,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협의체 구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게 일본과 중국은 각기 중요한 파트너이다. 집중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숍을 구성하고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원재, 전 희망제작소 소장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소셜디자인을

**SDS**  
퇴근후  
Let's  
HMC

**Let's**  
HMC  
Social Innovation  
Camp 36

문화예술교육 CO-UP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디어스쿨  
마기브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HMC  
지역공동체  
모용민용가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이상해요. 오픈포  
시·문·화·술·불  
농촌 희망 본부  
디자인 재발견  
서울의 재구성

모든 희망은  
good fund raiser  
커뮤니티  
사회적  
금융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타임지성프로젝트  
장은변화  
Make Hope  
good fund raiser

웃는마을명함대어  
문드라운  
시민문화예술불꽃행사  
HOPE  
목민관  
학교

공공  
리더십  
U3A서울  
감사의식탁  
사회적  
혁신

나는 희망한다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물물  
아름다운 시니어단체가

시민문화  
예술물물  
아름다운 시니어단체가

마을이학교다  
카뮤니티  
비즈니스  
한일포럼  
마을기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렛츠클  
@서울  
공유경제  
기억가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행복하게  
아름답게

천개의직업  
거버넌스  
목민관  
학교  
포럼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  
ANIS  
기술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캠프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기억가  
두런때  
social innovation

99% fund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문화  
예술물물  
아름다운 시니어

여행사  
공공  
농촌희망본부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